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24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8. 27.

발 의 자 : 김한규 · 장철민 · 신정훈
이재관 · 정동영 · 박희승
김 윤 · 서미화 · 모경종
이연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, 합성,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자 또는 허위영상물을 편집, 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 · 판매 · 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, 구입,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에는 소지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 · 구입 ·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(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).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